농업정보신문

2008년 3월 17일 월요일 9

봄철 맞아 사랑의 손길 충만!

화안사업단, 제주지역 등 봉사활동 줄이어

봄기운이 서서히 한반도를 감싸 안으면서 지역 곳곳에서 봉사활동 소식이 전해져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한국농촌공사 화안사업단(단장 이철오)은 지난 12일 사랑의 선녀수녀회 평화의집(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 후원금과 후원품 전달하고 봄맞이 대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화안사업단 소속 '사랑나눔봉사군 동호회'는 이미 작년부터 조직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다. '사랑나눔봉사군 동호회'는 올해에도 소년소녀가장 2명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으며, 태안군 천리포해수욕장에서 기름유출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등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랑나눔봉사군 동호회'은 앞으로도 헌혈, 무의탁노인복지시설 방문, 소년소녀가장돕기 자연보호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농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역시 지난 12일 '2008 봉생이나눔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제주시 오라동 사회복지시설 '인효원 보은의 집'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양은 본부장을 비롯한 회원 20여명이 참여했으며 봉사단은 복지관 내외부 청소 및 다과를 전달했다.

한편 봉생이나눔봉사단은 제주지역본부 직원들로 구성된 사회봉사단체로 매월 정기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2008년에는 제주지역 정서를 감안, 관내 재활센터, 노인복지시설 등의 청소활동, 4·3 사건 희생자 유족회 가족 등의 집수리, 장판교체, 천정 수리 등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봉사단의 한 회원은 "앞으로도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 동참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공사상을 정립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전했다.

담당	팀장	단장	3월 일	결재
(서명)	(서명)	(서명)		